

2026년 7월 9일

Hana FX Daily Letter

수급 개선 기대감, 환율 하락 이끌까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중등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수급 개선 기대 등에 하락

daily range 예상: 1,495~1,510원

■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으나, 전면전으로까지 치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의 오름폭이 축소되었음. 이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원 환율에 미칠 영향도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한편, 국내 반도체 기업의 달러 자금 유입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전일 장중 1,400원대에 진입했음. 고점 인식이 강해진 수출업체들의 매도 물량이 더해진다면 하락 폭이 확대될 수 있음. 또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원화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전일 동향 : 8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23.2원 하락한 1,505.0원에 마감. 중등발 긴장 재고조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소폭 상승한 1,516.5원에 장을 시작. 장중 국내 반도체 기업의 달러 자금 유입 기대감과 외국인의 증시 순매수에 힘입어 큰 폭 하락, 1,498.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 이후 야간 거래에서 미-이란 휴전 중단 우려에 리스크오프 분위기 불거지자 1,500원 초반대로 반등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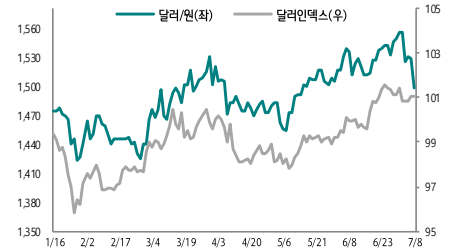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중등 지역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전은 원치 않는다는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자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음
- (유로-달러) 시장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FOMC 의사록과 미국의 중등 확전 자체 기조 등으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임
- (달러-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발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에너지 수입 부담 확대 우려 속 엔화는 약세 흐름을 이어감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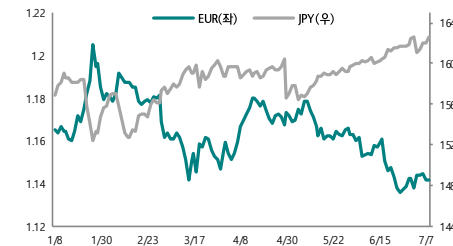
■ 최근 외환시장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원화 환율이 1,500원 초반대에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번 환율 하락의 주요 배경에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에 따른 대규모 달러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물론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자금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규모와 속도로 유입될지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이 호재 자체만으로도 그간 시장을 지배했던 달러 매수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여기에 외환당국의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와 외환시장 24시간 체제 전환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압력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이처럼 원화 약세의 쏠림 기대가 완화되고 환율 하락 전망이 강화되면 외환시장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즉, 현재 환율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관망해 오던 수출업체들이 달러 매도 물량을 본격적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된다면 그간 교여있던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점차 원화 환율이 1,400원대로 하방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516.5	1,522.5	1,498.1	1,504.9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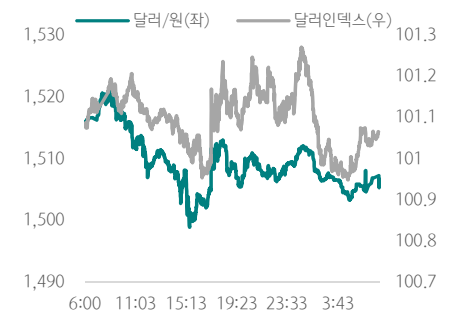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417	162.56	6.8054
전일대비	+0.0005	+0.53	+0.0015
재정환율	1,719.83	927.55	221.58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0:30	중국 6월 CPI상승률(YoY)	1.1%	1.2%
21:30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218k	215k
23:00	미국 6월 기준주택매매	4.20m	4.17m

최근 원화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주: 26/7/8 기준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